

리뷰 2m802

98.10

● 隨想1

한강 물이 그림의 떡이 된다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한 강 물이 그림의 떡이 된다” 이말은 한강 물이 음용수는 물론 농업 또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게 오염된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이다. 한날 헛된 가상이라고 일축하기 어려울 만큼 한강물의 질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6일 저녁 KBS TV의 ‘정범구 세상 읽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동의 새벽〉의 저자 박노해 시인이 8년간의 수감생활에서 풀려 나와 놀

라워했던 세 가지 일 중의 하나가 1l(실제로는 0.5l 입)의 생수를 500원주고 사먹고 있는 일이라고 한 사실이 귀에 남아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정 허용되던 생수 음용이 상수도의 수질을 문제 삼아 제13대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생수시판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의 쟁점은 생수의 시판을 허용할 경우 수도물 관리가 더욱 소홀해질 것이며 생수

를 사먹을 수 없는 보다 많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 빈부의 위화감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생수의 대중판매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휘발유보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생수를 사 마시게 되었다. 박노해 시인이 수감되던 8년 전 수도물보다 오늘의 수도물이 나아졌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는 현재 수도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수도물의 수질과 물맛을 개선해야 할 우리 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지구 둘레를 에워싼 공기와 햇살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이다. 물

은 생명유지의 필수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쓴다는 뜻으로 비유되던 '물 쓰듯 한다'는 말로 통용되던 지난날의 물 풍족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오늘날 물 부족이 아닌 물 기근 시대가 닥치고 있다고 세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제 400여 일을 남겨두고 있는 2000년대에는 석유가 아니라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것이다. 70년대에 우리가 겪은 석유파동처럼 물 파동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물 부족의 주원인을 수질오염과 가용 수자원의 감축이라고 보고 있다. 96년도 11월호 <유네스코 sources>에 '95년도의 물압박을 지도가 게재되어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물 부족이 없는 국가군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가 속해있는가 하면 물 공급량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태국, 프랑스, 영국 등이며 물이 극히 희귀해 수입에 의존하거나 바닷물을 정수해 쓸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압박을 지닌 국가들로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들과 같은 범주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90년 초에 이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물기근 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수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악화되고 있는가 하면 수량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 물의 씹씹이는 가히 위험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1일 평균 물 사용량은 394l (94년도 기준)이다. 독일 국민이 196l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두 배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서 얼

마나 물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물 값이 싼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기준의 수도물 값은 프랑스의 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물 사정은 비상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리만 요란하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물 문제 해결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시간 빨리 가기 위한 고속철건설사업을 더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염통 끓는 줄은 모르고 손톱 끓는 것만 아파한다는 속담이 있는가 보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고속철건설사업과 물 문제 대책을 놓고 어떤 문제가 보다 화급한지를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한 발상은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 대책안 검토를 위해 계획되었던 공청회가 한강상류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생겨진 것이다.

1800만 수도권 인구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 대책안이 국가의 적정한 재정투입과 수혜자의 응분의 부담이 불충분한데 반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상의 또는 생활편의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데 문제가 있다. 수질 개선은 기초시설의 확충과 주변 지역특별관리도 긴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팔당상수원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하루속히 팔당호가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한 팔당호는 살아날 수 없다.

한강 물이 한낱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투자, 그리고 시혜자와 수혜자의 형평성 있는 부담원칙이 지켜지고, 그리고 정책결정과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동반자로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은 부족해서도 또는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는 현세대만이 아닌 후세대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맑은 물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리뷰**